

갈등해결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갈등*

김 경 희 | 성신여자대학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부자에게는 오만을, 가난한 자에게는 굴종을 재생산시킨다. 이는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빈부갈등의 해소를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의 논의를 살펴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의 강화를 주장한다. 적당한 재산을 가진 중산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계층이다. 그들이 빈부갈등에 균형추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국가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국가체제 내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와 가난한 계층을 국가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이해를 각기 대변하는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 때 연대와 통합의 정치는 가능하다.

마키아벨리는 빈부의 문제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고자 한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정치의 사사화를 조장하여 공적인 국가질서를 부패시키고 몰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혼합정체를 옹호한다. 혼합정이 구현하는 공정한 법질서를 통해 빈부격차의 심화를 제어하려 하는 것이다.

주제어: 갈등해결,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빈부갈등, 혼합정체

I. 들어가며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다.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사익추구욕구와 더불어

*이 논문은 2011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과제명: 빈곤과 사회정의: 빈곤의 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존의 정치) 연구보고서에 제출된 원고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적 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행태는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는 비용과 책임은 공적으로 해결하고, 이익은 사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짜퉁 자본주의’(Ersatz capitalism)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Stiglitz 2009). 시민들은 그들의 분노를 ‘점령하라’(occupy) 운동으로 표출하였고, 1 대(對) 99, 즉 1퍼센트의 상류층과 나머지 99퍼센트의 일반 시민들 간의 대립이라는 구호로 분출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과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은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긴축재정안에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와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일부 부유한 시민들 간의 분열된 모습은 유럽 국가들에 뿌리 내린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열된 시민사회의 모습에 대한민국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는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 가히 갈등의 포화상태라 할 정도로 많은 갈등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오는 보도들은 이런 갈등 중에서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¹⁾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고와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저소득층이며 사회의 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는 30대 남성의 이야기나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른 자살률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암울한 이야기들은 경제여건의 악화와 그 속에서 소외된 빈곤층 그리고 그것을 낳게 한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다(Financial Times 11/05/30).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불평등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²⁾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중산층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중산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는 더 명확해진다. 75.4%이던 1990년의 중산층 규모는 2010년 67.5%로 7.9%가 감소하였다. 여기서 중

-
- 1) 물론 양극화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화의 진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한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무역자유화, 기술진보, 자본자유화,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경기순환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개인, 산업, 국가 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기획재정부 2011).
 - 2) 문화일보 2010년 8월 2일자 기사는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 구조가 OECD 중 ‘최고속’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년 새 소득배율 3.83 → 4.78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산층은 일반적으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50~150% 범위에 있는 계층을 말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인 이상 도시가구 중산층 월평균 소득은 약 322만 원이었다. 지난 20년간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비율은 17.5%에서 20%로 증가한 데 비해,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7.1%에서 12.5%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11/08/29).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중산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1990년 37.5세에서 2010년 47세로 열 살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맞벌이 비율도 15%에서 37%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산층이 되려면 더 높은 학력과 더 오랜 경제활동 기간이 필요하고, 부부가 동시에 벌어야 한다는 얘기다”(동아일보 11/08/29). 중산층에 진입하기가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진 것이며, 중산층에서 탈락하기는 그만큼 더 쉬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증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문제,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³⁾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증가 및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 대책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 정책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정책, 즉 정치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정작 정치적 문제이며 그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⁴⁾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난’ 혹은 ‘빈부(貧富)’의 문제를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로 파악했던 서양 정치사상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들은 서양 고대 정치사상의 대표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근대 정치사상의 시조라 불리는 마키아벨리(Machiavelli)이다. 고대 정치사상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근세 초기의 정치적 문

3)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2012년 초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에서도 소득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 하위층의 배에 가까운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비 차이는 해마다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득악화 → 교육악화 → 고용악화 → 소득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겨레신문 12/01/10).

4) 최근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문제를 경제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2일 보도자료 “세계적 양극화 현상 및 시사점”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양극화 및 빈곤 문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제의식을 대표하는 마키아벨리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⁵⁾ “선의 단일성 및 윤리와 정치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치와 윤리의 영역을 구별하는 마키아벨리는 엄연히 서로 다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Mouffe 2007, 65). 하지만 이 두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 특히 정치체제의 형성을 바라보는 데서 동일한 관점을 보여준다.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와 그것을 구성하는 세력들 간의 관계가 바로 정치와 그 이해의 핵심관건이라는 것이다. 두 정치 사상가들에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주요 세력은 바로 ‘빈자’와 ‘부자’이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나타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상가들은 빈자나 부자만의 권력 독점을 비판한다. 그것은 정치체제 나아가 국가를 혼란과 몰락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자와 부자들에게 공히 정치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을 역설한다. 가난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이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을 빈자들이 상실한다거나 부로 인해 과도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부의 집중과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였다. 그것은 빈자와 부자가 시민으로서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지배자로 빈자는 피지배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등한 시민이라는 이름만 남고, 실질적으로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고착화 될 때, 갈등은 증폭되고 이는 혼란을 가져와 국가를 약화시키게 된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개인 간의 사적인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인 것이며, 체제유지의 핵심 관건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공동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는 건전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부패는 동료 시민들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연대성이 사라지고, 지배와 복종 그리고 시기와 미움만이 남을 때 나타난다. 공적인 공간과 관계는 부자들의 파당화로 인해 그들에 의해 독점되고 배타적으로 지배되어 사유화된다. 파당화된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게 된다. 권력과 경제적 자원 등의 불평등한 소유와 지배로 인해 동료 시민들 간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

5) 대체로 목적론적 세계관과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고전 철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윤리와 정치를 분리하는 근대사상가로서 마키아벨리는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와 시민적 덕성이라는 공화주의적 문제의식에 주목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의 논의를 분석하고 있는 학자로는 포카(Pocock 2011) 참조.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구분과 마키아벨리의 혼합정론의 연관관계에 대해 개념사적으로 짧게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파스키노(Pasquino 2009) 참조.

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건전한 시민문화와 법질서 나아가 신뢰관계에 기반한 정치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빈자와 부자 간의 갈등을 정치의 핵심문제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아리스토텔레스와 빈부갈등

1. 아테네 정치변동의 원동력으로서 빈부갈등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변동과 정치발전의 문제를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대립과 반목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⁶⁾ 『아테네 정치제도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준 아테네 정치제도의 변화 과정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갈등관계에 그 원동력이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은 솔론(Solon)이었다. 그가 행한 정책의 핵심은 부자들의 전횡에서 피폐해지는 가난한 이들을 보호한 것이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를 임대해주었고, 그 대가로 경작물의 6분의 1을 받아갔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은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부자들 밑에서 일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이들은 “제 몸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처분에 자신을 맡겨 더러는 고향에서 노예가 되고 더러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다”(Plutarchos 2006, 99). 부자들은 토지를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을 자신들의 예속 하에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속이 계속되자 평민들은 부자들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자 아테네인들은 중재와 해결을 솔론에게 일임하게 된다. 이에 솔론은 우선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부채를 삭감해주었다. 아울러 부자들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여타 법제도를 만들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과정은 부자들의 전횡에서 민중들을 보호하고 정치공동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부채를 탕감한 것 이외에 솔론이 행한 중요한 업적은 시민층을 재산에 기준으로 4개의 계층으로 나

6) 아테네 민주정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포레스트(Forrest 2001) 및 양병우(1976) 참조. 아울러 솔론에서 페리클레스 개혁기까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으로는 서병훈(2011) 참조.

는 것이다. 500메딤노이, 기사, 제우기타이, 테테스가 그것들로, 이를 통해 솔론은 이전의 혈연, 지연 등으로 인한 시민 구성을 재산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하려 하였다(Plutarchos 2006, 108-109). 아울러 솔론은 “억울한 처지의 사람을 위하여 원하는 사람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판소에서 상소심 재판을 하도록 하였다”(Aristoteles 2002, 59). 여기에서 공적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솔론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자신의 욕심보다는 다수의 이익과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 사람”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양편 중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 그들의 지지를 얻어 참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최선의 법을 만들기 위해 양편 모두의 적의를 얻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Aristoteles 2002, 60). 이에 비해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는 민중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참주라고 하기에는 공익을 옹호하고 대중을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참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타도되고 나서도 부자들과 민중들은 여전히 대립하였는데, 후자를 대변했던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가 권력을 잡게 된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추방제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이전의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자식들이 보여주었던 참주정치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 유력자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이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존의 혈연, 지연 중심의 네 부족을 10개의 공적인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여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로 묶으려 하였다. 부족중심이 아니라 폴리스라는 공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재편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적 제도의 확충을 통해 아테네는 견실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외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아테네의 군사력에서 드러난다.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아내고 마라톤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무장 보병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무기를 스스로 구비할 수 있었던 중산층 농민계층에서 나온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민중들 사이에서 중산층이 성장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앞서 언급했던 공적 제도의 완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테네 정치제도는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테네는 그리스 국가들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전쟁은 아테네가 주도하게 되고, 다른 그리스 동맹 국가들은 그 재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동맹의 군사부분을 담당하게 된 아테네의 군대는 육군에서 해군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 중심에는 수병이 자리 잡게 된다. 삼단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 젓는 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들은 일용직 노동자 등 하층 계급인 테

테스로부터 충원되게 된다. 해군중심으로 재편된 아테네 군대의 영향으로 힘이 세진 테테스 계층은 아테네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동맹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재화는 아테네 민주정의 강화에 사용되게 된다. 정치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들로, 민회에 참여하거나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할 때 보수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그러한 재화로 인한 재정적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군사업무에 복무함으로써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던 테테스 층들은 민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호전적인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⁷⁾ 따라서 이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페리클레스(Pericles)의 사망 이후 무분별한 전투를 계속해서 감행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칠리아 전투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고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지게 된다. 이러한 패전의 경험은 많은 아테네 사상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체제와 정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데모스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고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테테스는 당시 민중들의 대부분을 이루었기에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했던 정치가 데모스(Demos)가 지배(Kratia)하는 민주주의(Demokratia)로 불리었던 것이다.

중무장 보병이라는 중산층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대립과 반목이 심해지게 된 것이다.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진 민중과 부자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는 이성을 잃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서로의 이익에 눈이 먼 결정을 내려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을 자신의 정치사상의 핵심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산층에 중심을 둔 정치체제와 혼합정론을 전개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갈등해결의 방안으로서 중산층 정체와 혼합정체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 즉 폴리스의 삶이 자급자족의 상태일 때 최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먹고 살기위해 노동을 하고 재산을 획득하는데 그것에는 자연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이 있다. 문제는 관습적인 것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화폐의 사용을 통한 재산의 필요이상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나게 된다. 각자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7) 이로 인해 심해진 아테네의 빈부갈등에 대해서는 김봉철(1996, 44쪽) 참조.

즉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한 것을 뛰어넘는 부(富)를 증식하는 것이 화폐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던 것이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를 시민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체라는 것이다(Aristoteles 2009, 131). 시민들의 구성에 따라 국가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정체구분에서 잘 드러난다. 부자가 우위를 지니고 있으면 과두정이며, 가난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민주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사회 윤리적 가치를 기준에 추가한다.⁸⁾ 지배자의 수가 많은 적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면 그것은 좋은 정체가 된다. 반면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지배하면 그것은 나쁜 정체가 된다.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들의 자족적인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타인들을 배제한 일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것은 최악의 정치체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 이익을 위한 통치는 국가를 동등한 시민들 즉 자유민들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적이고 전제적인 국가로 만들어낸다(Aristoteles 2009, 150). 또한 이러한 사익추구의 정치는 시민들 간의 권력 및 재산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이는 불평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정치혼란과 정체변동의 원인을 국가 구성원들 간의 파쟁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파쟁의 원인은 불평등에 있었다(Aristoteles 2009, 262). 불균형과 분열은 파당을 만들어내고 이는 정체변혁의 핵심이유로 작용한다. 아울러 파당의 대립은 뛰어난 한 인물에 자신들의 이해관계 해결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권을 위임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나타나는 것이 참주 독재정이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 간의 대립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난한 이들이 자유시민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파당을 결성하고 부자들과 대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들은 부자들을 누르기 위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 인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참

8) 누가 지배하는가와 무엇을 위해 지배하는가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인이 지배하는데, 공익을 위해 통치를 하면 그것은 왕정(basileia)이라 불리며, 반면 지배자 일인의 사익만을 위해 지배하면 그것은 참주정(tyrannis)이 된다. 소수의 뛰어난 인물들이 공익을 위해 지배하면 귀족정(aristokratia)이고, 그들의 사익만을 위해 통치를 하면 과두정(oligarchia)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지배하면 혼합정(politeia)이라 불리우며,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운영하면 민주정(demokratia)이 되는 것이다(Aristoteles 2009, 151-152). 여기서 소수는 일반적으로 부자를, 다수는 빈자를 가리킨다.

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주정치는 자유가 부재하고 법보다는 적나라한 폭력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치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에 기반 한 혼합정을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쪽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다른 한쪽은 비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계층은 그 물질 배경으로 인하여 중용지도(中庸之道)를 가질 수 있으며, 이성적이 된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해소되기 힘든 불화와 반목을 중재하기에는 중간 계층의 중립성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매우 부유한 자들, 매우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중간계급(hoi mesoi)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도와 중용이 최선이라는 것이 인정된 만큼 [...] 중간상태가 최선임이 명백하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에 가장 잘 복종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지나치게 힘이 세거나 지나치게 집안이 좋거나 지나치게 부유한 자라든가, 반대로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지나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한미(寒微)한 자는 이성에 복종하기가 어렵다. 이 가운데 전자에 속하는 자들은 무뢰한이나 대형 범죄자가 되고, 후자에 속하는 자들은 불량배나 경미한 범죄꾼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한쪽은 교만한 마음에서, 다른 쪽은 악의에서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 이것은 둘 다 국가에 유해하다(Aristoteles 2009, 230).⁹⁾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구성원들을 세 계층으로 구분한다. 부유한 자들은 복종하려는 의지도 복종하는 법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와 권력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복종하는 습관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 반대로 가난한 이들은 지배할 줄 모르고 노예 처럼 지배만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의 도시 즉 교대로 공무를 담당함으로써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자유로운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심해지면 그 곳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국가가 생겨나 시민들 간의 유대감은 사라지고, 시기와 경멸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럴 때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시민들 간의 우애로서 유대감은 사라진다. 동등한 자들 간에 생겨나는 유대감은 주인과 노예 관계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유대감이 사라진 곳을 파고드는 것은

9) 아리스토텔레스(2011, 66)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행복한 삶의 전제로서 중용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이 때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적대감속에서 나오는 미움과 반목뿐이며, 파쟁(派爭)만을 낳을 뿐이다.¹⁰⁾

국가를 이러한 파쟁과 분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동등하고 대등한 자들”인 중산계급이다. 그들은 “빈민들처럼 남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거니와, 빈민들이 부자의 재물을 탐하듯, 아무도 그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들도 그들에게 음모를 꾸미지 않고, 그들도 남들에게 음모를 꾸미지 않으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Aristoteles 2009, 231). 중산계급이 많아 우위를 점한 국가에서는 시민들 사이의 반목과 파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적당한 재산의 소유로 인해 이성을 사용하여 중용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용의 삶은 서로 불신하는 부자와 빈자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2009, 236)는 중산계급이 중심에 선, 다시 말해 “중산계급이 다른 두 계층을 합한 것보다, 또는 둘 중 어느 한 쪽보다 수가 많은” 경우를 최상의 정치체제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계층에 기반 한 정체의 실현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중산계층의 수가 적어서 부자와 빈자의 대립 속에서 민주정과 과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그리스에서는 부자와 빈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등으로 인해 파쟁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이라는 서로 한쪽에게만 유리한 정체를 만드는 분위기 조성하였고, 여기에 강력한 두 나라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각 도시국가들에게 서로에게 유리한 정체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Aristoteles 2009, 233).¹¹⁾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부자들과 빈자들을 혼합한 혼합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¹²⁾

10) 도벨(Dobel 1978, 230) 참조.

11)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의 아테네와 그리스 국가들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산계층에 기반 한 정체를 옹호한 것을 과거 회귀적 즉 솔론의 개혁과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의 중무장 보병에 기반 한 정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념형으로서 상정하는 학자들이 있다(Aalders 1968; Spahn 1977, 1988). 아울러 중간계층의 다수화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팔레아스가 제안한 정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파쟁의 원인을 재산문제에서 보고 재산의 평준화 혹은 균등화를 추구하는 팔레아스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2009, 89-95)는 산아제한 및 욕구제한의 필요성과 더불어 배운 자들은 이러한 평등에 불만을 품기 때문에 그 현실화 가능성이 지극히 어렵다고 말한다.

12)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과 중산층에 기반 한 정체/혼합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모호하고 난해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오랫동안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부자들만이 지배하는 정치는 과두정이 되고, 가난한 자들만이 지배하는 정치는 중우정이 된다.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게 될 때, 그 국가는 미움과 분노의 표출을 막아낼 수 없고 그 귀결은 내란과 음모 나아가 몰락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파국을 막아내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체를 주장한다. 모든 정체가 무너지게 되는 핵심 요인은 어느 한 층이 다른 층보다 너무 크도록 놔두는 데 있기 때문이다(Aristoteles 2009, 295). 공동체를 이루는 두 중요한 층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불균형과 극단적 관계를 막기 위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공히 정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에 자신들의 부분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¹³⁾ 즉 민주정과 과두정의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에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양 체제의 범규를 같이 취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난한 자가 범정에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부자가 불출석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정과 과두정의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두 체제의 상이한 범규의 중간을 취하는 것이다. 민회에 참여하는 데 민주정은 재산요건이 없거나 낮고 과두정은 높다. 이 경우 그 중간을 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각에서 일부를 취하는 것이다. 민주정에서 공직자는 자격의 재산요건 없이 추첨으로 뽑지만, 과두정에서는 재산요건과 더불어 선거로 뽑는다. 재산요건을 무시하고 선거로 뽑으면 이는 각각에서 일부를 취하는 것이 된다(Aristoteles 2009, 225). 혼합정은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참여를 공히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에 같이 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혼합을 통한 참여를 통해 파쟁을 제어하고 국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혼합정체’는 민주정체의 요소와 과두정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중 어느 쪽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또한 그 ‘자력’이란 대다수가 정체의 존속을 원한다는 데서가 아니라 – 나쁜 정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도 다른 정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서 나와야 한다(Aristoteles 2009, 226).

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의들(Sternberger 1978; Nippel 1980; Johnson 1988)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것들에 기반하고자 한다.

13) 참여(participation; teilhaben)의 의미는 실로 모두(all)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part; teil)을 가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빈부격차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나아가 국가존립의 문제였다. 빈부격차로 인해 빈자와 부자 간의 대립이 격해지면 서로 정치를 독점하여 상대를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수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이성적인 행위 대신 자기 파당의 이익만을 위한 극단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무리한 전투를 벌여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도 가난한 자들이 지배한 중우정(衆愚政)의 영향이었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족적이기에 이성적이고 중용의 도를 수행할 수 있는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체가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공히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혼합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혼합을 통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III. 마키아벨리와 빈부갈등

1. 국가와 공적 질서를 무너트리는 빈부격차

마키아벨리에게 빈부격차의 심화는 한 국가의 몰락을 가져오는 핵심 문제 중 하나였다. 이는 로마 공화국의 몰락을 가져왔던 핵심적인 계기를 농지법 개혁을 두고 일어난 귀족과 인민들 간의 대립과 투쟁에서 찾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Machiavelli 2003, 189-193). 귀족에 의한 토지 소유의 독점과 그것으로부터 배제되고 경작할 토지를 가지지 못해 점차 가난해져 갔던 인민들 사이에서 그라쿠스(Gracchus) 형제는 인민의 편에 서게 된다.¹⁴⁾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조항과 적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한다는 조항으로 이루어진 농지법은 부자인 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귀족들의 불만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인민들과 귀족들의 대립과 갈등에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평민파 혹은 인민파를 한편으로 하고 귀족파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파당들을 만들게 하였다. 마리우스(Marius)와 카이사르(Caesar)는 평민파의 우두머리였으며, 술라(Sulla)와 폼페이우스(Pompeius)는 귀족파의 수장이었다. 결국 이러한 평민파와 귀족파간의 대립은 농지법을 둘러싼 재산문제로 인해 그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양쪽은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에 의존

14) 아테네에서 토지소유 귀족의 전횡을 제어하고자 했지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던 솔론과는 대비되는 일이다.

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인 무력충돌을 일으켜 로마 공화국을 몰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이 다른 쪽을 제어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전권을 맡기게 됨으로써 자유가 아닌 지배의 체제 즉 카이사르에 의한 참주정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부자인 귀족들의 야망과 지배욕이 국가에 해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도시가 다양한 수단과 방식으로 부자들의 야망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즉시 그 도시를 파멸에 빠뜨릴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Machiavelli 2003, 193). 이렇게 부를 쌓은 귀족은 자유를 같이 향유하는 동료 시민들보다는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신민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을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발견한다. 그는 자신들이 일을 해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모든 공화국은 물론 모든 나라에 위험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위험한 이들은 거기에 더해 ‘성곽’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신민들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동료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관계보다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더 익숙하여 “모든 종류의 자유로운 정부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Machiavelli 2003, 241).¹⁵⁾

이렇게 부자인 귀족과 인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져 서로간의 불만과 불화가 쌓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국가는 부유하지만 시민은 가난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시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빈곤에 허덕이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가난은 먹고 살기 적당한 중산층 정도의 경제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풍요롭고 사치스러울 때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해 탐욕스러워지고 나태해져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당한 재산에 만족하는 중산층 시민들이 넘쳐났던 나라가 고대 로마와 마키아벨리 당시에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았던 독일이었다. 로마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명예를 전리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고, 가난이 명예를 얻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청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인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공공재정이 필요할 때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독일이 인접국과 많은 교류를 갖지 않았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자기 나라가 제공한 물자를 즐기고, 식량을 소비하며, 양모로 옷을 지어 입는 데 만족”해 왔던 것이다(Machiavelli 2003, 240). 이에 이들은 시민들 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귀족의 전횡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⁶⁾

15)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퍼거슨(Ferguson 1989) 317쪽과 존스(Jones 1997) 235쪽 이하 참조.

16) 마키아벨리는 『군주론』(2008, 75)에서도 독일인들의 국고의 풍부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넘치지

시민들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의 유용성은 재물을 통해 자신이나 동료 시민을 부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데 있다.¹⁷⁾ 시민들을 가난에 묶어 두지 못하여 재부(財富)를 축적한 자가 나타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권력의 불평등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질서를 무너트리는 첩경이 된다. 재산과 권력을 독점한 이들은 자신의 객관적 능력이 아니라 재부와 사사화된 방법을 통해 명성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그것은 파당을 만들어 혼란을 추동해낸다. 이러한 사적인 방법의 유효성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적인 방법은 다양한 개인들에게 사사롭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며, 행정관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 밖에도 사적으로 유사한 호의를 베풀어 시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시혜자의 파당으로 만들고,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을 부패시키고 법을 위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Machiavelli 2003, 525).

이렇게 사적인 방법으로서 재부의 사용은 역량 없는 부(富)를 용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직이나 어떤 공적 지위에 필요한 합당한 능력이나 역량이 없음에도 재부를 사용하여 그 직위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능력이나 역량이라는 공적인 기준을 재력이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가문 등 사적인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 질서는 무너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반목과 대립은 격화되는 것이다.

국고는 부유하게 하고, 시민들을 가난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말 속에는 개인들의 사적 부가 공적 질서의 기준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관직을 얻어 명예를 얻는 등의 공적 행위와 평가의 기준이 그것에 합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부라는 사적 기준이 파고 들어올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부를 추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의 부패의 경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가난함이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명예든 당신이 거

않는 자족적인 삶을 칭송하고 있다.

17)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부패는 평화 속의 나태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직접적 계기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소유에 있다. 이는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농지법에 의해 야기된 투쟁과 최고 지휘권의 연장을 통해 분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Machiavelli 2003, 513). 즉 전자는 부의, 후자는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벨(Dobel 1978, 963-964) 참조. 아울러 마키아벨리의 타락개념에 대해서는 브라이틀링(Breitling 1988), 비롤리(Viroli 1998) 4장 및 스킨너(Skinner 2010) 3장 참조.

기에 이르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인재를 등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보다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더 강력한 조건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 상태는 명백하게 부에 대한 소망을 덜 갖도록 만든다”(Machiavelli 2003, 515).

부에 의해 공적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그에 따른 명예를 통해 부를 얻을 수 있을 때, 부는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시민들은 가난을 명예롭게 생각할 것이며, 부당한 부의 추구를 멀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2. 갈등해결의 방안으로서 혼합정체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인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 관계가 정치의 핵심문제라고 파악하였다.¹⁸⁾ 귀족은 그 재산과 권력 그리고 가문 등으로 인해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반면 인민은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한 쪽은 지배하려 하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의 갈등 관계로 인해 법질서가 탄생한다고 말한다. 서로의 갈등을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공적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문제가 이들의 갈등관계에 중첩되어 나타나면 그것은 어느 대립관계보다 더 견잡을 수 없게 된다.¹⁹⁾ 그것은 로마의 농지법 문제를 통해 입증된 것이었다. 아울러 재산의 문제가 정치에 개입될 때 시민은 그 어느 경우보다 빨리 부패하게 된다고 말한다. 주어진 정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기쁨을 선사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찬성하는 등 그 타락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통해 사적인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정치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가난한 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것은 재물과 부의 추구를 모든 영역,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제일의 목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는 정치를 사사화(私事化)하는 지름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를 부패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18) 이에 대해서는 『군주론』 9장과 『로마사 논고』 1권 2장~5장 참조.

19)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Machiavelli 2008, 115).

이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를 통해 야기되는 정치의 사사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부라는 기준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것은 공적 질서에서 명예를 얻는 기준을 역량에 한정시키는 것이다. 행정관에 선출되는 사람은 그 직무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이들에 국한될 때, 역량이라는 기준은 준수될 수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굳이 부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부'가 아니라 '역량'일 때, 시민들은 부를 추구하지 않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가 모범을 보여준 혼합정에서 찾고 있다.

혼합정은 군주제, 귀족제 그리고 민주제의 요소를 혼합한 것이다. 로마의 경우에는 집정관, 원로원 그리고 호민관 혹은 민회를 통해 앞의 세 가지 요소를 혼합할 수 있었다 (Machiavelli 2003, 83). 그런데 이 혼합은 제도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며, 그 실질적 내용은 국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층인 귀족과 인민들을 공동체 내에서 묶어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귀족들에게는 원로원이라는 공간을 주고, 인민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호민관이나 민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 체제 내에 서로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두 계층의 국가에의 참여와 복무를 독려해 내는 것이다. 아울러 한 층에 의한 권력독점을 제어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낸다. 이를 통해 파당투쟁으로 혼란이 야기하는 것을 제어해 내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국가체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융합시키고 통합시켜 내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과 통합의 공간이 바로 공적인 법질서와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혼합정적인 국가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는 국가는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서 자유는 획일적인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질서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타 계층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공공성을 통해 담보되는 자유 질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그 속에서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의 계발과 발휘가 가능하고 그것이 아무 제약 없이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모든 도시와 지방들은 매우 커다란 번영을 누린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사람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매력적인 것이 되고 각자 자신의 가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게 되어 아이들을 기꺼

이 낡아 키우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아이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Machiavelli 2003, 278).

반면 앞에서 말한 공적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혼합정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것은 단순정체가 된다. 이는 어느 한 층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귀족이나 인민 혹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폭군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는 자유와 평등은 사라지고 노예상태만이 남게 된다. 지배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합의와 토론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펴기 보다는 자의적 지배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사적 폭력과 무법이 판치게 되며 지배하는 이들에게는 오만과 방종이, 지배받는 자들에게는 굴종과 비굴함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상태는 불만과 미움을 재생산하게 되어 음모와 모반이 끊이지 않는 항상적인 내전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무질서의 혼란상황은 다름 아닌 권력을 독점한 층이 정치를 사사화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사화를 통한 정치와 권력의 부패는 혼합정을 통해 극복 가능한 것이다. 서로 다른 층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쟁론하는 제도가 완비될 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갖추 수 있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동질적인 집단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의 독점과 전횡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혼합정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빈부격차의 문제는 극복 가능해진다. 혼합정은 다른 계층 간의 공존과 공치(共治)를 꾀하기에 공정한 규칙을 핵심으로 삼는다. 불공정한 규칙은 어느 한 계층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정함이라는 기준, 즉 공정한 법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 하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혼합정은 출발의 동등함과 경쟁의 공정함을 꾀한다. 그런데 빈부격차의 심화는 출발과 경쟁의 불공정함을 재생산한다. 혼합정의 이념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국가는 부유하게 시민들은 가난하게 유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난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려고 한다. 그것은 공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는 데 역량을 핵심 관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를 중요시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귀족과 인민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혼합정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IV. 나아가며

빈부격차 문제는 가장 심각한 정치문제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부자에게는 오만을, 가난한 자에게는 굴종을 재생산시킨다. 그것은 자유를 고사시키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배하려는 자와 기꺼이 복종하려는 자가 있다면 법질서는 무력화된다. 질서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의 논의는 빈부격차의 정치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는 결국 자유와 평등이 근간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만과 굴종의 문화는 재능과 자질 계발을 북돋는 자유의 공기를 질식 시킬 것이다. 지배하려는 부자와 순종하려는 가난한 자 사이에는 동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 간에 생기는 연대성의 정치는 나타날 수 없다. 연대성이 사라진 시민들은 모래와 같이 흩어지는 사이가 된다. 사상누각(沙上樓閣) 위에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누각은 위기의 상황에 제 모습을 드러낸다. 위기의 시기에 가난한 자들 중 누가 부자를 돕겠다고 나서겠는가?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 누가 우리 모두의 조국이 아닌, 부자들만의 나라를 지키려 나서겠는가? 빈부격차로 인한 연대성의 상실과 대립의 격화는 ‘우리의 나라’가 아닌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므로써 무력(無力)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대립과 파쟁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위협 중의 하나는 독재정치 혹은 참주정치의 출현이다. 이것 역시 민주주의의 고사(枯死)를 가져온다. 미움과 시기가 만연해지고 좌절과 분노가 심해지면 그것은 이성과 합리가 통하는 판단을 불가능하게 한다. 상대방이 싫어 자신도 꺼려하는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것이다. 미운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되는 한 인물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재이자 참주정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히틀러(Hitler)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경제 위기에 빠졌던 독일 국민은 투표라는 합법적 행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그들을 구해 줄 영웅을 찾았던 것이다.

빈부격차의 심화가 심각한 정치문제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리스토텔레

스와 마키아벨리에게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의 강화를 이야기 한다. 적당한 재산을 통해 자족하는 삶을 사는 중산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계층이다. 아울러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국가체제 내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중간계층에 기반한 정치체제 혹은 혼합 정론이다. 중산층이 존재함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계층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대립의 격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계층 사이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국가체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자와 가난한 계층을 국가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이해를 각기 대변하는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 때, 다시 말해 어느 한 층은 배제시키고 다른 계층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혼합시킬 때, 그들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비로소 통합과 연대는 가능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빈부의 문제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고자 한다. 빈부격차의 문제가 정치영역에 들어오면 그것은 정치의 사사화를 조장하여 공적인 국가질서를 부패시키고 몰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역량이 중요시되는 정치 질서와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역량이 기준이 될 때, 부를 유일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귀족이나 인민 공히 경제적인 부보다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인민의 갈등이 제도화되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법질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혼합정체를 옹호한다.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귀족과 인민을 국가질서에 통합시켜 견제와 균형을 내재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적인 국가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문이나 부 같은 사적인 수단을 통한 권력의 재생산이나 공적인 명예의 추구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제어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빈부격차의 심화는 제어될 수 있으며, 국민들은 검소하지만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2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의 해였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었다. 한국 국민들이 근래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정치의 해는 다양한 갈등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도권 정치에 불만을 품은 젊은 유권자들의 소위 '바람의 정치'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의 표출은 한국 국민들이 처해 있는 삶의 곤란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지배 경제구조로 인해 아무리 수출이 많이 되어도 그 과실이 서민경제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의 자동화와 자본

의 국제화로 인해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다. 가계대출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었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맞물려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의 사교육비는 공교육의 부실에 편승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으며, 경제자본과 교육자본이 일치하는 현상을 낳게 하고 있다. 공부만 잘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었던 시대는 가고 부자 부모를 두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계층의 고착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가난하면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연봉이 많은 취직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배제와 소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로 인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등은 증폭하고 있다. 방종과 오만으로 가득 찬 가진 자의 행위는 최근 매 값을 주고 사적 폭력을 행사한 재벌가의 행태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돈이라면 어떤 굴종적인 일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불만과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빈부격차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만과 굴종을 통해 사적 폭력 같은 사사화된 관계가 공적 관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법제도는 합리적인 시민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토대로서 중산층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예측관계와 그 관계의 폭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잠재해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다. 그와 같은 나라는 더 이상 자유공화국이 아니다. 자유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배제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혼합정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진 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이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는 시기에는 가지지 못한 자의 목소리를 더 담아야 한다. 하나의 국가질서에 서로 혼합되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공적 제도가 정립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계층 간의 통합은 가능한 것이다. 혼합을 통한 연대와 공감의 정치만이 분열과 배제를 극복하고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투고일 2012년 12월 30일

심사일 2013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3년 1월 24일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 “세계적 양극화 현상 및 시사점.”(9월 2일).
- 김봉철. 1996. “아테네의 역사.” 김진경 외 지음. 『서양 고대사 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13-48.
- 동아일보. 2011. “대한민국 중산층 20년간 줄고 늙고 고단해졌다…현대경제연구원분석.”(8월 29일).
- 문화일보. 2010. “韓 소득불평등 OECD 중 ‘최고속’ 악화, 10년 새 소득배율 3.83 → 4.78… 평균보다 4배 빨라.”(8월 2일).
- 서병훈. 2011.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 – 비판적 성찰.” 전경욱 외 지음. 『서양 고대 · 중세 정치사상사: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르네상스까지』, 29-60. 서울: 책세상.
- 양병우. 1976. 『아테네 민주정치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계레신문. 2012. “불평등 코리아, 브레이크가 없다.”(1월 10일).
- Aalders, G.J.D. 1968. *Die Theorie der gemischten Verfassung im Altertum*. Amsterdam: Verlag Adolf M. Hekker.
- Aristoteles. 최자영 역. “아테네 정치제도사.” 최자영 외 편역.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 아테네 · 스파르타 · 테바이 정치제도』, 49-114.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 _____. 강상진 · 김재홍 · 이창우 역.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길.
- _____. 천병희 역. 2009.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숲.
- Breitling, Rupert. 1988. “corruzione und virtù - zur Dialektik Machiavellis.” Ein Essay, Breitling, Rupert/ Gellner, Winand, eds. *Machiavellismus: Parteien und Wahlen, Medien und Politik. Politische Studien zum 65. Geburtstag für Professor Dr. Erwin Paul*, 127-148. Gerlingen: Maisch + Queck.
- Dobel, J. Patrick. 1978. “The Corruption of a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No.3, 958-973.
- Ferguson, Wallace Klippert 저. 이연규 · 박순준 공역. 1989. 『서양 근세사 –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해』, 서울: 집문당.
- Financial Times. 2011. “South Korea: An economy divided.”(May 30).
- Forrest, W. G. 저. 김봉철 역. 2001.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 Johnson, Curtis. 1988. “Aristotle’s Polity: Mixed or Middle Constitutio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X. No.2, 189-204.
- Jones, Philip. 1997. *The Italian City-State: From Commune to Signoria*. Oxford: Clarendon

Press.

Machiavelli, Niccolo 저. 강정인 · 김경희 역. 2008. 『군주론』. 서울: 까치글방.

_____. 강정인 · 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Mouffe, Chantal 저. 이보경 역.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Nippel, Wilfried. 1980. *Mischverfassungstheorie und Verfassungsrealität in Antike und Früher Neuzeit*. Stuttgart: Klett-Cotta.

Pasquino, Pasquale. 2009. "Machiavelli and Aristotle: The anatomies of the city." *History of European Ideas* 35. No.4, 397-407.

Plutarchos. 천병희 역. 2006. 『그리스를 만든 영웅들』. 서울: 도서출판 숲.

Pocock, J. G. A. 저. 광차섭 역. 2011.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전 2권. 파주시: 나남.

Skinner, Quentin 저. 강정인 · 김현아 공역. 2010.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 서울: 한겨레출판.

Spahn, Peter. 1977. *Mittelschicht und Polisbildung*. Frankfurt/a.M: Peter Lang.

_____. 1988. "Aristoteles." Iring Fetscher und Herfried Münkler (hrsg), eds. *Pipers Handbuch der Politischen Ideen, Bd. 1, Frühe Hochkulturen und Europäische Antike*, 397-437. München: Piper.

Sternberger, Dolf. 1978. *Drei Wurzeln der Politik* 1. Frankfurt am Main: Insel Verlag.

Stiglitz, Joseph. 2009. "Obama's Ersatz Capitalism." *The New York Times* (March 31).

Viroli, Maurizio 1998. *Machiavell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Politics of Conflict Resolution: Aristotle, Machiavelli and the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Kyung Hee Kim |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rich becomes arrogant and the poor subservient in the society, wher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widening. This can be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roblem because it breaks down the foundation of a free democratic republic.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cussion of Aristotle and Machiavelli for the rich and poor conflict resolution.

Aristotle argue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iddle class. Middle class with proper property can judge reasonably and rationally. They can achieve a steady state by acting as a counterweight to the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rich and the poor within the state. When they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participate in the institutions, the politics of solidarity and integration can be achieved.

Machiavelli will keep the problems of the rich and the poor from coming to the political area.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encourages the privatization of the politics and makes public order corrupt. In order to overcome this, Machiavelli advocates a mixed constitution. The fair law order which the mixed constitution realizes tries to control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Keywords: Conflict Resolution, Aristotle, Machiavelli,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Mixed Constitution

